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교우관계의 영향력과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김효은 · 김기원

계명문화대학 패션디자인과 교수
행정안전부 시험 전문관

Influence of friendship to academic persistence and drop out and mediation effect of school adaptation

Kim Hyoeun · Kim Kiwon

Prof., Dept. of Fashion Design, Keimyung College University
Expert,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bstract

This study was to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goal setting, self improvement, social support of parents, friendship, school adaptation, drop out. In our research model, goal setting, self improvement,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friendship is exogenous variable and school adaption and drop out is endogenous variable. A total of 323 undergraduate student(254 female, 69 male) complete the questionnaires.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showed that, as hypothesized, establishment of goals, social support of parent and friendship have effect on school adaptation, and friendship also have direct effect on drop out. School adaptation mediate path from goal setting, social support of parents, and friendship.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for a model that show how to control the drop out of students.

Key Words : Halfway dropouts (중도탈락), Goal setting (목표설정), Self-improvement(자기개발), Social support of parents (부모의 사회적지지), School adaptation (학교적응)

1. 서론

2003년부터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감소로 인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입학정원은 고등학

교 졸업생 수 보다 더 많아진 실정이며 이와 같은 졸업생 수와 입학정원의 차이는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¹⁾. 따라서 상당수의 대학은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여 학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Corresponding author: Kim Kiwon, Tel. +82-2-2100-8555, Fax. +82-2-2100-8559
E-mail : simrihak@gmail.com

런 상황에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새로운 학생을 유지하는 방법과 그렇게 유지한 학생이 학업을 마칠 때 까지 중도탈락을 방지하는 것이다. 새로운 학생의 유치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방법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중도탈락의 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한다.

대학에서 중도탈락의 문제는 학생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학과 및 학교의 운영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입시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이동의 문제는 학교에 입학 한 후에도 편입이나 반수와 같은 사유로 유사한 학생이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게 된다. 이러한 중도탈락은 학교와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년제 대학에서 발생하는 중도탈락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전문대학의 중도탈락 문제는 4년제 대학과 비교할 때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10년 동안의 학생 변동 상황을 살펴보면 전체 재적학생 중 휴학생의 비율이 4년제 대학은 약 31%내외로 유지되고 있지만 전문대학은 1999년 33.1%에서 중도에 38.5%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35%내외의 높은 휴학생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제적학생의 비율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제적학생 비율은 2000년 3.8%를 기록한 이후 2010년까지 4%대에서 머물러 있으나 전문대학은 제적학생의 비율이 2000년 4.9%에서 2008년 8.3%를 기록한 후 2010년 7.3%를 나타내서 4년제와 비교할 때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제적률을 보이고 있어 심각성은 더하다²⁾ 이러한 중도탈락은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에도 예외는 아니다. 김효은³⁾은 대학의 구조조정으로 패션관련 학과와 학생 정원이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전문대학과 기능대학 예체능계열 패션관련 학과 학생의 2008년과 2009년도 중도탈락률'은 대상 대학별로 다소 높아진 점을 지적하면서 중도탈락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학생들이 중도에 학교를 이탈하게 되며 학생 수의 부족 때문에 대학의 교수학습 기능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 학교를 이탈하지 않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역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⁴⁾.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중도탈락으로 학습권이 보장되지 못한 수업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의욕을 떨어뜨려 또 다른 중도 탈락을 불러온다는 악순환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적정한 정도의 인원이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대학에서는 학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학교를 그만 두려는 학생들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서비스를 집중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⁵⁾. Beaty와 Guenter⁶⁾는 전문대학에서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미국의 전문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학생유지 전략을 배치(sorting) 전략, 지원(supporting) 전략, 연계(connecting) 전략, 개편(transforming) 전략으로 구별하고 있다. 배치전략은 학업 및 취업목적에 따라서 학생의 수학적능력에 따라서 최적의 프로그램에 배치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전략은 학생의 재정 상태나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연계전략은 학생과 전문대학 간의 관계를 좀 더 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며, 개편전략은 학습조력 혹은 진로상담과 같은 학생의 변화를 유도하기위한 활동과 교육과정개편과 같은 전문대학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 신봉섭은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지원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⁷⁾. 첫째, 대학생활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주로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신입생들에게 자기이해를 위한 검사나 인간관계, 리더십 같은 자기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직업능력 개발 상담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적성을 진단할 수 있게 해주고 진로에 대한 정보제공 및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말한다. 셋째, 학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

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 학생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넷째, 학업상당과 자문 프로그램이다. 대학생들이 직면할 수 있는 개인적 문제나 사회적 문제 그리고 학업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과연 학생들이 대학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들이 중도탈락을 어떤 식으로 방지해 줄 것인지 알기 어렵다.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들에서 다양한 원인이 제시되고 있지만 중도탈락과 관련된 변인으로 학생의 교우관계와 선후배관계 같은 비공식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패션디자인 관련 학과의 학업 수행에서 팀을 이루어 진행되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교우관계와 선후배관계 같은 비공식적 관계의 질이 학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이러한 관계가 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지와 개인의 목표설정 그리고 자기계발이 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도탈락에 관련된 연구들이 중도탈락과 관련있는 변인 자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중도탈락이 어떤 기제를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려는 연구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중도탈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적 변인들이 어떻게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는지 그 구조를 탐색해 볼 것이다.

II. 연구배경

1.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

우리나라에서 중도탈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1970년대부터 대학생의 중도탈락이 높아짐에 따라서 대학의 재정이 대학의 운영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이후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⁸⁾⁹⁾. 실제로 1970년~

1980년도의 기간을 대상으로 ERIC(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에서 중도탈락과 입학학생감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을 검색하면 2,000여 건의 연구문헌을 찾을 수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초기의 연구¹⁰⁾는 해당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학생의 개인적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학생의 중도탈락을 분석한 연구들은 학생의 개인적 요인, 대학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찾는 연구들이 있었다. 개인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성, 연령, 인종, 가정환경, 주거지역, 진학동기, 출신 고등학교 등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안하고 있다¹¹⁾. Price¹²⁾는 미국의 전문대학에서 중도탈락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성인여학생, 실업 상태에 있는 성인학생, 그리고 비학위과정에 등록된 학생들의 중도탈락이 높았다. 그는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중도탈락을 예방하기 위한 몇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여성 센터의 설립이다. 전문대학에서 가장 많은 중도탈락을 보이는 집단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고 개인메일을 통하여 센터의 존재를 알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입생 세미나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과 학생들 간의 지지적 관계의 촉진, 학생 교수간의 상호작용 등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의 학생이 가진 능력과 흥미 그리고 필요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개인이 가진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학교를 마칠 수 있었다. 따라서 세미나를 통하여 학생의 흥미와 목표 그리고 능력을 확인하고 여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교내에 학생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학생의 중도탈락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학교는 산학협력을 통하여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어

야 한다. 네 번째는 교원개발 프로그램을 확립하는 것이다. 학생의 유지와 유지에 교원의 질은 중요한 요인이며 이러한 교원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 외에 인문학적 자질도 포함된다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학생조직의 지원이다. 그는 중도탈락이 학생의 학문적인 능력부족 때문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서로의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학과 차원의 학생조직을 지원할 경우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줄어 들것이라 하였다. 여섯 번째는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개발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다. 그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 중도탈락이 줄어들었음을 확인하면서 이 프로그램에는 학교의 교육정책, 학생을 위한 서비스 외에 학생이 경험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최근의 연구로는 인지심리학의 신호탐지이론(signal detection theory)을 적용하여 학생들이 겪은 예상치 못한 중요사건 혹은 충격적 사건들이 학생들의 중도탈락을 예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형을 개발한 것이 있다¹³⁾.

우리나라에서 중도 탈락 혹은 학업 중단과 관련한 문제를 다룬 연구는 최근 들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초기 미국대학의 중도탈락에 대한 연구¹⁴⁾부터 대학기관 특성, 대학 간 학생이동¹⁵⁾ 학생의 재등록 향상을 위한 대학 서비스의 질 측정¹⁶⁾ 개인변인과 부모변인 그리고 기관변인과 중도탈락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¹⁷⁾, 개인특성, 대학특성과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¹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병식¹⁹⁾은 대학의 규모에 따라서 휴학생의 비율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휴학생의 수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의 소재지에 따라서도 휴학생의 비율이 달라진다고 하였는데, 주소 도시에 소재한 대학의 휴학생 비율이 읍면 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휴학생 비율보다 높다고 하였다.

오영재²⁰⁾는 학생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

학생의 성별 요인과 고등학교 성적, 이전 대학에서의 평균학점, 대학의 소재지, 단위대학의 학사운영제도와 특성화, 문화경제적 요인과 같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끌어오던 변인 외에 진로지도와 대학선택과 같은 대학이전 요인과 문화경제적 요인이 학생의 이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김수연²¹⁾은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에서 학업을 지속하여 졸업을 한 집단과 휴학과 중퇴를 경험한 집단을 구분한 후 학업지속과 휴학과 중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해 보았고 그 결과 성별, 연령, 그리고 거주지와 학교가 위치한 곳의 일치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김수연²²⁾은 전문대학 학생들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대학의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 교수들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전공에 대한 비전 제시 부족, 고등학교에서 부적응이 그대로 연결됨, 학생지도의 미흡,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문대학에 대한 낮은 평가, 그리고 직업에 대한 낮은 전망들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학생의 유지율이 매우 높은 대학의 구성원과 면담을 해 본 결과 유지율이 높은 이유는 배려 깊은 밀착 학생지도, 학제 및 교육과정개편, 실습학기제를 통한 철저한 현장중심교육, 총체적 학사운영 시스템이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라 보고하였으며, 실증 분석의 결과 학문적 통합성과 사회적 통합성, 교수와의 상호작용 그리고 대학 만족도가 중도탈락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into²³⁾는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다섯 가지 접근을 크게 심리학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경제학적 접근, 조직론적 접근 그리고 통합모형 접근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첫째, 심리학적 접근에서는 중도 탈락이란 개인의 결핍과 낙약함을 반영하는 것이고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한 개인적 실패로 본다 따라서 이 입장에서는 중도탈락을 결정짓는 요인을 개인의 행동적 특징에서 찾으며 이러한 개인적 행동 특징 즉 개인의 성격, 동기, 속성 등이 학업을 완성하려는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둘째 사회학적 접근에서는 교육의 결과물은 개인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개인이 경쟁한 결과의 반영으로 본다²⁴⁾.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고

등학교 때의 성적과 대학에서의 성적과 같은 개인의 학업능력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며 개인의 교육목부와 부모의 기대수준, 부모의 개입정도 역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본다²⁵⁾. 따라서 이 접근에서는 개인의 사회적 배경, 인종, 성 등은 학생의 성공에 중요한 예언인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경제학적 접근에서는 학생의 중도 탈락은 주어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본다. 학생이 학업을 유지하는데 있어 재정적 지원의 여부는 중도탈락과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학업을 유지하는데 부모로부터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고 따라서 가구의 수입은 학생의 중도탈락과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넷째, 조직론적 접근에서는 교육기관의 조직 및 형식적 구조가 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의 조직 구성원이 다른 조직의 구성원과 비교해 볼 때 중도탈락의 정도가 낮은지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모형 접근이다. Tinto에 의해서 제안된 이 접근은 1990년대 초반 대학생의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주된 모형이었다. 이 접근 방법은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공식조직 뿐만 아니라 학생동료 집단과 학생 학위문화 같은 비공식적 사회 조직 그리고 학생 교수 직원 간 개인적 상호작용이 중요할 하다는 입장이다.

이 중 통합모형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Tinto의 연구 모형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하였다. 그는 학생 수의 감소에 대하여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에 따르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학생만의 문제 또는 학교만의 문제로 설명하기 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학생이 중도탈락을 하는 행위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행동 그리고 그 학생이 몸담고 있는 학교 내 다른 구성원의 특성과 행동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는 것이다. 그는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였다. 첫 번째 요인은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반응하는 학생 개인의 특징이고 다른 하나는 학교에 입학한 후 학교의 다른 구성원과 접하게 되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Tinto와 같은 연구자에 의해서 학생동료집단의 중요성이 지적되었고 학생학위문화 역시 중도탈락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들 변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려는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2. 목표설정과 자기계발

Tinto²⁶⁾의 모형에서 개인적 특성은 학업에 대한 의지와 헌신성이 포함된다. 의지는 학습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고 때로는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취업목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리고 헌신성은 학생이 시작한 학습 과제의 완성 정도를 말한다. 이 헌신성은 자신의 교육 목표 뿐만 아니라 학교의 제도에 대한 헌신성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학습목표와 취업목표에 대한 의지가 강한 학생일수록 그리고 학습 과제의 완성정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Price²⁷⁾의 연구에서도 더욱 헌신적인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선주²⁸⁾는 사이버 대학의 중도탈락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그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자의 72.8%가 시험을 치르지 않았고 시험을 치른 중도 탈락자 중 D 이하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 70%였다. 학업 프로그램에 중에 있는 학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계발의 의지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자기계발의 의지가 낮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학교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적을 것이고 따라서 중도탈락의 정도 역시 높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3. 부모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자아의 감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지식과자원의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화의 기회 등의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위안,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²⁹⁾,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케 하여 건강한 생활을 가능

하게 한다³⁰⁾.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지각, 외로움,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의 감소와 신체적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³¹⁾ 친구, 배우자, 가족 등으로 부터 풍부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³²⁾

Barrera(1986)은 사회적 지지를 대상자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실제로 받은 사회적 지지로 구분하면서 지각된 사회적지지가 스트레스의 정도나 부적응과는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즉 실제로 제공받은 지지 보다는 대상자가 스스로 느끼는 지지가 스트레스로 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결과로 얻게 되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뜻한다. 따라서 이 긍정적 자원은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심리인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좌절을 극복하게 해 주며, 문제에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외부의 스트레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개인의 발달을 증진 시키고 발달 단계에 맞는 과업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³³⁾³⁴⁾.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주의의 팽배와 교사 및 교우간의 유대관계가 약화되거나 혹은 사회적 지지가 약해 질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³⁵⁾.

사회적지지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부모의 지지이다. 왜냐하면 청소년은 부모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과 요령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며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가족이 제공하는 지지는 자기 존중감을 증가시키고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증가시켜 문제 행동의 발생을 낮춘다³⁶⁾. 또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하여 학업성취도가 더 높다고 하였다³⁷⁾.

Tinto의 모형에서도 가족배경은 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가족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학부모들의 영향력이 대학까지

지속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대학생에서도 학생의 학교 적응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4. 교우관계 와 선배관계

Astin³⁸⁾은 학생의 학업지속은 학교의 교직원과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친구와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질과 양에 따라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Rendón³⁹⁾은 대학생의 지속적 등록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초기에 이루어지고 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오리엔테이션과 조력프로그램이며, 다른 하나는 첫 번째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대학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만남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Noel⁴⁰⁾은 학생들과 정기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함으로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성장경험을 제공해 주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목표와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배우도록 해 주는 사람이 학생의 학업지속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대학의 관계자들이 학생들을 돌보아 주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학생들이 중도탈락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보았다. Tinto⁴¹⁾는 학생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원인으로 학업수행의 곤란, 적응문제, 학문적, 직업적 경력목표의 모호함, 자기개발 수행의 부족, 그리고 고립 및 학교에서 다른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들 중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성들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 보다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에 경험하는 대학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의 질과 이러한 상호작용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그는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고 난 후 학문적 경험과 바람직한 타인과의 상호에 잘 동화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 경험이 어떤 가에 따라서 중도탈락을 할 것인지 학업을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동화는 부조화

(incongruence)와 고립(isolation)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부조화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관심사, 기능 등과 학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혹은 기회제공의 불일치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고립은 학생이 대학에서 자신과 상호작용 하거나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교수나 직원 혹은 선배와 동료의 부재로부터 발생한다. 그는 부조화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다른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기 힘들지만 고립은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학생의 중도탈락은 학생들을 친구나 선배 그리고 교직원 같은 학교의 구성원과 더 많이 접촉할 있도록 하면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하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빈도는 줄어드는 대신⁴²⁾ 친구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의미를 추구하게 된다⁴³⁾. 즉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감소되나 반대로 친구의 지지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⁴⁴⁾. Laible 등⁴⁵⁾의 연구에 따르면 친구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정⁴⁶⁾의 연구에서도 친구애착은 학교적응에 유의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효능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과 같은 시기의 교우관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패션디자인 학과와 같이 협동 작업을 토대로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는 친구관계가 학업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같이하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비록 경쟁을 할 때도 있지만 협력을 통하여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친구관계에서의 실패는 고립감을 경험하게하며, 학업성취가 어려워지며 정신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⁴⁷⁾. Aboud와 Mendelson⁴⁸⁾에 따르면 친구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지원은 친구와 함께 하면서 얻게 되는 '교제의 즐거움' 도구적인 지원인 '도움' 친구에게 느끼는 '친밀감' '신뢰', '인정'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위로와 활력을 주는 '정서적 안녕'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회 정서적 지원을 통하여 학생들은 학교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친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면 학업 역시 계속이어 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한 가지 더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선배와 후배간의 관계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선배후배 관계는 자연스럽게 선배가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시 말해 대학에서의 선배는 먼저 대학생활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후배가 학교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문제점과 학과공부에서 만날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이다. 이처럼 선배는 멘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후배가 학교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Colarelli 와 Bishop⁴⁹⁾은 멘토가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적응과 만족이 높다고 하였다. 김지영⁵⁰⁾의 연구에서도 멘토링이 대학생활의 적응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요한 변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학교생활에서 선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학업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선배를 멘토로 삼아서 학교적응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도움을 받은 학생은 학교적응과 만족도를 높일 것이며 중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중도탈락의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정명화⁵¹⁾ 등의 연구에서도 선배가 멘토가 되어 재학생인 멘티의 전공학과의 적응을 돕고 전공과 관련된 진로탐색에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5. 학교적응과 중도탈락

중도탈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 학교적응이다. 물론 학교 적응을 잘하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형편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 두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에 적응을 잘 한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에 비하여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학교적응은 학생들이 학교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말한다⁵²⁾ 만약 학생이 학업과 대인관계 그리고 정서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적절히 수

용하고 잘 대처할 수 있다면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매우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중도탈락의 가능성은 이와 같은 학교적응의 실패로부터 출발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다면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진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연구모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목표설정과 자기개발, 부모, 친구가 학과 적응과 중도탈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목표설정, 자기개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목표설정은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자기개발은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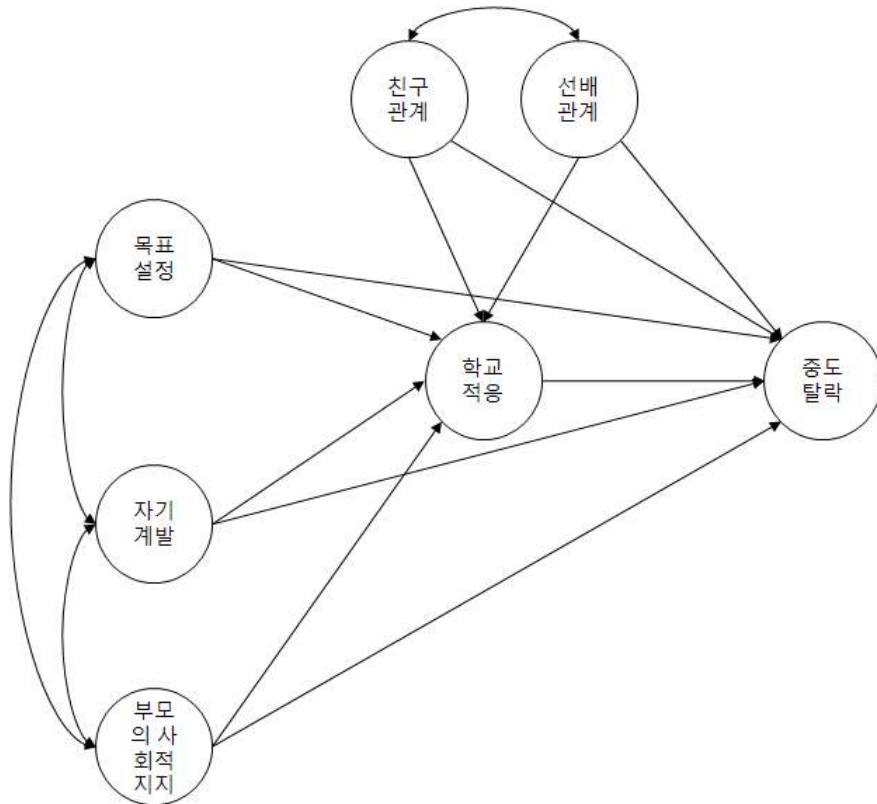
가설 1-3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친구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목표설정, 자기개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관계, 선배관계, 그리고 학교적응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1 목표설정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림 1> 중도탈락의 원인에 대한 연구모형

가설 2-2 자기계발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3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4 친구관계는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5 선배관계는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2-6 학교적응은 중도탈락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학교적응은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와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1 학교적응은 목표설정과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2 학교적응은 자기계발과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3 학교적응은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4 학교적응은 친구관계와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가설 3-5 학교적응은 선배관계와 중도탈락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간·최대정⁵³⁾이 개발한 창업자 역량평가 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여기에 포함된 문항으로는 “현재 나의 상황을 파악하고 목표설정을 한다”와 같은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설정에 해당하는 측정치는 김효은⁵⁴⁾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인분석으로 통하여 두 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과 “일반적 목표설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요인으로 묶인 문항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2) 자기계발

재학생의 자기계발 노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목표설정과 마찬가지로 박동건·최대정⁵⁵⁾이 개발한 창업자 역량평가 도구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기계발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문항으로는 “전공과 관련해서 더 공부할 계획이 있다”와 같은 문항 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에 해당하는 측정치 역시 김효은⁵⁶⁾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요인분석을 통하여 “자기계발 희망”과 적극적 자기계발”의 두 가지 요인으로 분해되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평균값을 이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3) 부모의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적지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지원⁵⁷⁾이 사회적지지 척도를 만들면서 제안한 4가지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정보적지지, 그리고 정서적 지지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평가적 지지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자기 평가와 관련된 것을 말하며, 물질적지지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혹은 물건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 정보적 지지는 개인이 대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는 존경, 애정, 관심, 신뢰와 같은 정서적인 표현을

III. 방법

1. 조사대상

대구와 경북 그리고 충청남북도에 위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패션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전체 323명이었으며 이 중 여자는 254명이고 남자는 69명이다. 모든 항목에서 응답자가 응답을 하지 않은 사례는 자료처리에서 제외하였다.

2. 측정방법

1) 목표설정

재학생의 목표설정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박동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학업에 대하여 부모가 보이는 네 가지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지지에 대하여 하나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문항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서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4) 친구관계

학교생활에서 친구관계가 가지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친구가 어떤 정도로 필요한지를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친구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과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친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까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5) 선배관계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와 마찬가지로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선배의 역할이 어떤 정도인지를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선배의 필요성에 대한 지각과 전공과 관련된 공부를 하는데 선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까지 Likert 형식의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6) 학교적응

학생들이 학교에 어느 정도 적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 두 가지 문항을 사용하였다. 첫째, 학과의 적응정도를 “현재 학과에 적응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이용하여 질문하였고 응답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에서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까지 5점 척도의 형식이다. 두 번째는 수업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을 이해하는 정도를 물었으며 10%에서 100%까지 10%단위로 나누어져 있었다.

7) 중도탈락

중도탈락은 학생이 재학 중에 학생의 개인적인 이유 또는 대학기관의 이유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⁵⁸⁾ 이러한 학업 중단에는 휴학, 퇴학, 제적, 복합, 재입학, 편입학, 그리고 전과 등이 있고 이중 일시적이던 영구적이던 학교를 떠나는 중도탈락에 포함되는 것은 휴학, 퇴학, 제적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우 따라 중도탈락에 휴학을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휴학도 중도탈락으로 포함하였다. 중도탈락의 측정치는 김효은⁵⁹⁾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중도탈락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학재학 동안 휴학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와 “앞으로 이 학교를 중간에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의 두 가지 질문을 이용하였다. 각 항목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 “모르겠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의 3단계로 응답을 나누었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전산처리를 거쳐 입력되었으며 분석을 위하여 각 항목별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도탈락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외생변인(exogenous variable)으로 목표설정, 자기개발, 부모의지지,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를 설정하였고 내생변인(endogenous variable)으로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을 설정하였다. 설정된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변인들이 구조방정식 모형에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별로 첨도(kurtosis)와 왜도(skewness)를 확인하였다. 측정변인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후 연구 모형에 바탕을 두고 측정모형을 평가한 후 구조모형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전체효과와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부합도(goodness of fit)는 부합도 지수인 χ^2 값을 산출하고 TLI(Tucker 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여 판단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PSS for Windows 15.0과 AMOS 7.0이었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는 패션디자인 관련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연구에 사용된 변인들이 다변량 정규성의 가정을 지키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편포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 연구에 사용된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산출하고, 측정모형이 타당한지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에서 제안된 잠재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해 볼 것이며 이후 제안된 모형의 수정하여 최적을 모형을 산출할 것이다.

연구에 상된 측정변인이 다변량 정규성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skewness) 그리고 첨도(kurtosis)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정규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Chou와 Bentler⁶⁰⁾ 연구를 따르는데, 그들은 몬테카를로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사용될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할 기준을 제안하였다. 먼저 편포도의 경우 3이 넘을 경우 극단적인 편포를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첨도는 8에서 20까지를 극단치로 보고 있다.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는 West, Finch, and Curran⁶¹⁾이 제시한 것으로 편포도 2, 첨도 7보다 낮아야 정상성을 보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자료들은 편포도와 첨도 모두 2를 넘는 측정치가 없기 때문에 정상성의 가정은 충족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자료의 점검

<표 1> 연구에 포함된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그리고 첨도

잠재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편포도	첨도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3.592	.668	-.270	.268
	일반적 목표설정	3.692	.782	-.222	-.410
자기계발	자기계발 희망	3.900	.611	-.422	.327
	적극적 자기계발	3.215	.807	-.123	-.240
부모의 사회적 지지	정서적지지	3.785	.919	-.620	.400
	물질적지지	3.403	1.008	-.420	-.091
	정보적지지	2.708	1.103	.097	-.718
	평가적지지	3.484	.874	-.219	.355
친구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4.220	.898	-.862	-.149
	전공공부의 필요성	4.120	.907	-.726	-.393
선배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3.049	1.155	-.218	-.655
	전공공부의 필요성	3.102	1.128	-.359	-.497
학교적응	학과의 적응정도	3.898	.848	-.755	.812
	수업 이해도	6.293	1.883	-.431	-.195
중도탈락	중도탈락 가능성	1.347	.643	1.645	1.358
	휴학 가능성	1.458	.777	1.281	-.112

2.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구조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된 모든 측정변인들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3. 측정모형

측정변인(measurement variable)들이 잠재변인(latent variable)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는데 가장 값이 큰 측정변인을 1로 고정하고 나머지 항목에 대한 상대적 적재량을 추정한다. 먼저 측정모형의 부합도를 χ^2 , CFI, TLI, 그리고 RMSEA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이 값을 참고로만 사용하고

<표 2>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2. 일반적 목표설정	.606														
3. 자기개발 희망	.667	.446													
4. 적극적 자기개발	.419	.275	.512												
5. 정서적지지	.282	.251	.261	.150											
6. 물질적지지	.126	.179	.201	.223	.571										
7. 정보적지지	.168	.195	.170	.165	.372	.512									
8. 평가적지지	.274	.167	.281	.154	.676	.436	.336								
9. 학교생활의 중요도(친구)	.004	-.006	.036	-.014	.071	.051	.051	.098							
10. 전공공부의 필요성(친구)	.023	.021	.060	.061	.126	.079	.060	.108	.710						
11. 학교생활의 중요도(선배)	.178	.115	.159	.140	.060	-.003	.111	.047	.262	.230					
12. 전공공부의 필요성(선배)	.204	.166	.175	.134	.058	.018	.074	.040	.229	.223	.840				
13. 학과의 적응정도	.446	.279	.374	.270	.180	.135	.187	.138	.164	.165	.114	.099			
14. 수업 이해도	.438	.261	.454	.197	.254	.165	.145	.233	.059	.048	.135	.133	.395		
15. 중도탈락 가능성	-.332	-.192	-.277	-.111	-.189	-.101	-.124	-.250	-.262	-.269	-.111	-.096	-.328	-.407	
16. 휴학 가능성	-.225	-.147	-.219	-.153	-.114	-.054	-.134	-.200	-.163	-.140	.013	.017	-.292	-.276	.539

<표 3>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86.012	80	.303	.997	.995	.015(.000, .036)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다른 지수를 통하여 모형의 부합도를 판정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종⁶²⁾과 같은 연구자는 χ^2 값을 모형의 부합도 판단에 참고할 것을 권하고 있다. CFI와 TLI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9가 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형의 부합도가 좋다고 평가한다⁶³⁾⁶⁴⁾. RMSEA는 대체로 .05이하이면 좋은 부합도라고 판단하고 .08 이하면 부합도라고 보며, .10이상인 경우는 나쁜 부합도라고 평가 한다⁶⁵⁾. 특히 AMOS의 경우 RMSEA값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해 주는데 신뢰구간의 상한 값이 .08 혹은 .10보다 낮으면 부합도가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어 동일한 RMSEA값이라도 신뢰구간의 폭이 좁으면 부합도가 보다 우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표 3>에 제시된 값은 χ^2 값은 86.012이며 이에 해당하는 p값이 .303으로 모형이 잘 부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CFI는 .997이고 TLI는 .995로 역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RMSEA 역시 .015의 값과 좁은 신뢰구간(.000, .036)을 보여 이 측정모형은 좋은 부합도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모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측정하

고 있음을 나타낸다.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제시된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잠재변인에 해당되는 측정변인의 개별 요인 적재량은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기 때문에 모든 측정변인을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다.

4. 구조모형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지지, 친구관계, 그리고 선배관계 등이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 방정식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먼저 제안된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χ^2 통계치를 살펴보면 $\chi^2(82)=96.736$, $p=.127$ 로서 제안된 모형이 실제의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CFI와 TLI는 각각 .992와 .989로서 기준으로 보는 .90보다 높으며, RMSEA 역시 .04로 부합도를 평가하는 기준 값인 .05보다 낮고 신뢰구간(.000, .042) 역시 좁다는 것을 알 수

<표 4> 측정모형의 요인 적재량

잠재변인	측정변인	추정치	표준화계수	CR	p
목표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	1.000	.955		
	일반적 목표설정	.778	.634	10.820	.000
자기계발	자기계발 희망	1.000	.911		
	적극적 자기계발	.816	.562	8.959	.000
부모의 사회적지지	정서적지지	1.000	.900		
	물질적지지	.755	.623	10.689	.000
	정보적지지	.567	.425	7.144	.000
친구관계	평가적지지	.793	.751	12.444	.000
	학교생활의 중요도	1.000	.858		
	전공공부의 필요성	.976	.828	8.768	.000
선배관계	학교생활의 중요도	1.000	.915		
	전공공부의 필요성	.982	.919	10.383	.000
학교적응	학과의 적응정도	1.000	.661		
	수업 이해도	.407	.597	8.562	.000
중도탈락	중도탈락 가능성	1.000	.868		
	휴학 가능성	.864	.621	7.736	.000

있다. 따라서 제안된 연구모형의 전반적 부합도는 아주 좋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연구모형의 적합성이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모형을 통하여 추정된 경로계수를 이용하여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하여 추정된 경로계수는 <표 6>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목표설정과 학교적응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beta=.550, p<.01$), 부모의 사회적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beta=.133$ 으로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하였으며, 친구관계에서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경로계수는 $\beta=.154$ 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값을 얻었다. 친구관계에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경로($\beta=-.232, p<.01$)와 학교적응에서 중도탈락으로 이어지는 경로($\beta=-.776, p=.000$)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배관계→학교적응, 자기계발→학교적응, 선배관계→중도탈락, 부모의 사회적지지→중도탈락,

자기계발→중도탈락, 그리고 목표설정→중도탈락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얻지 못하였다.

5. 최종모형

연구모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도탈락을 설명할 수 있는 좀 더 나은 모형을 얻기 위한 모형찾기를 시도하였다.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하나씩 제거하고 전반적 부합도를 살펴본 후 부합도가 좋은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였고 유의하지 않은 경로를 모두 제거한 후 최종적인 모형을 설정하여 부합도를 평가한 결과 다음 <표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최종 모형의 부합도를 평가해 보면 χ^2 값을 포함한 모든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전체 부합도 지수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어 모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45)=48.951$ 이며 $p=.317$ 로 모형의 부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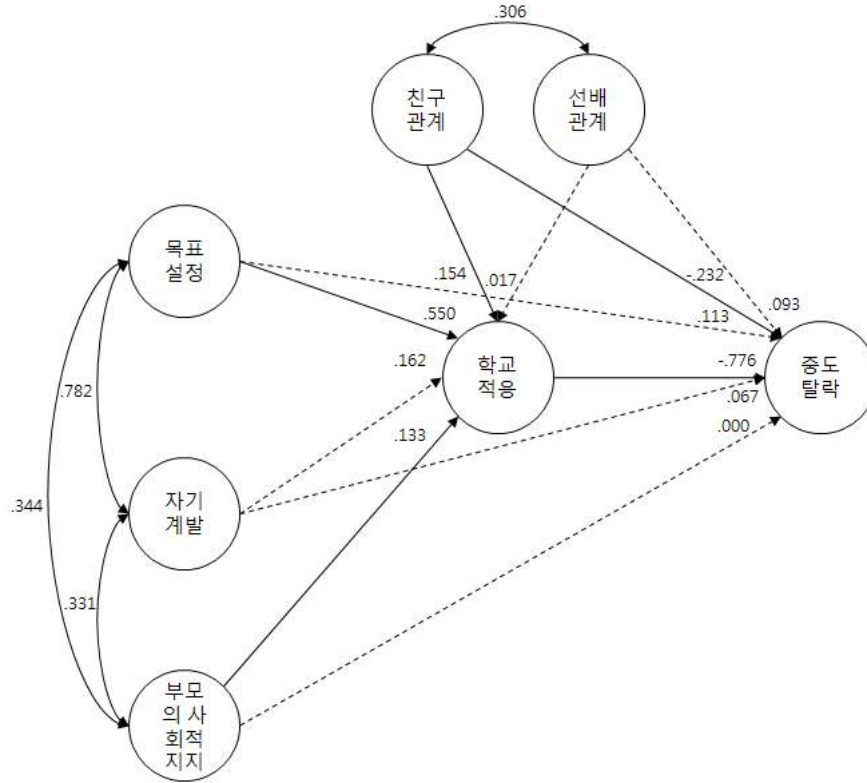
<표 5> 연구모형의 부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96.736	82	.127	.992	.989	.024(.000, .042)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표 6>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준화	표준화		
목표설정 → 학교적응	1.035	.550	3.205	.001
부모의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193	.133	1.759	.079
친구관계 → 학교적응	.236	.154	2.142	.032
선배관계 → 학교적응	.019	.017	.258	.796
자기계발 → 학교적응	.349	.162	.962	.336
선배관계 → 중도탈락	.047	.093	1.363	.173
친구관계 → 중도탈락	-.163	-.232	-2.883	.004
부모의 사회적지지 → 중도탈락	.000	.000	-.004	.997
자기계발 → 중도탈락	.066	.067	.460	.646
목표설정 → 중도탈락	.098	.113	.614	.539
학교적응 → 중도탈락	-.357	-.776	-3.606	.000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7> 최종모형의 부합도

지수	χ^2	df	p	CFI	TLI	RMSEA(CI)
모형	48.951	45	.317	.997	.995	.017(.000, .041)

주.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 Confidence Inter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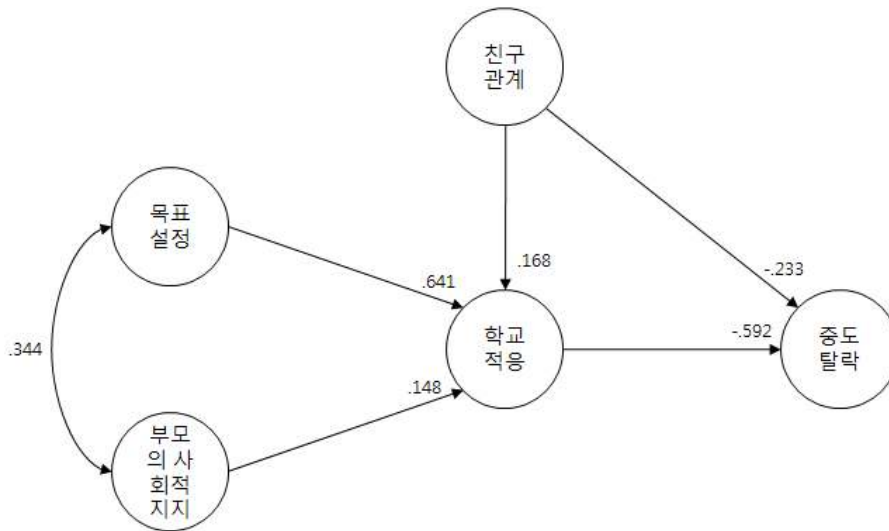
<표 8>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경로계수		CR	p
	비표준화	표준화		
목표설정 → 학교적응	1.244	.641	6.303	.000
부모의 사회적지지 → 학교적응	.221	.148	2.080	.038
친구관계 → 학교적응	.270	.168	2.422	.015
친구관계 → 중도탈락	-.170	-.233	-3.461	.000
학교적응 → 중도탈락	-.269	-.592	-7.298	.000

도가 좋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CFI와 TLI는 각각 .997과 .995로 좋은 부합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RMSEA의 값(.017)도 좋은 부합도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으며 신뢰구간(.000, .041) 역시 좁아서 부합도가 좋은 모형을 알 수 있다. 최종모형의 부합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검토하여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것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한다. 최종모형에서 얻어진 경로계수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것으로 최종모형에 포함된 변인은 친구관계, 목표설정, 부모의 사회적지지 그리고 학교 적응 등이다. 이들 각 경로를 살펴보면 목표설정에서 학교적응으로 가는 경로가 $\beta=.641$, $p=.000$ 의 값을 얻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목표설정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지지되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관계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beta=.148$, $p=.038$),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 양의 관계 이므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강할수록 즉 부모가 패션디자인과에서 학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좋은

평가를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학업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주며,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 주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친구관계에서 학교 적응으로 가는 경로도 $\beta=.168$, $p=.01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즉 친구관계가 학교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학업을 하는데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친구관계가 중요성을 느끼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것이라는 가설 역시 지지하고 있다. 또한 친구관계는 중도탈락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eta=-.233$, $p=.000$), 즉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지각이 높을수록 중도탈락을 하지 않는다는 결과로 이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 학생일수록 중도탈락의 정도는 낮아진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학교적응에서 중도탈락으로 가는 경로계수를 계산하여본 결과 $\beta=-.592$ 이고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경로계수의 부호가 음의 값을(-)을 가지므로 학교적응 즉 학교에 잘 적응한다고 느끼면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림 3>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 9> 연구에 포함된 잠재변인 간 총효과, 직접효과 그리고 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친구관계	중도탈락	-.233	-.100 *	-.333
부모의 사회적지지	중도탈락	.000	-.088 *	-.088
목표설정	중도탈락	.000	-.380 ***	-.380

*p<.05, ***p<.001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학교 적응의 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중도탈락의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한다.

다음으로 중도탈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 외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는 학교적응 변인이 가지는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기 위한 것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가 사용되었으며⁶⁶⁾⁶⁷⁾. 총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나눈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이처럼 총효과를 분해할 경우 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이 중도탈락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친구관계가 중도탈락에 미치는 효과는 직접효과($\beta = -.233$)와 간접효과($\beta = -.100$, Sobel $T = -2.288$, $p = .022$)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지각하는 것이 중도탈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친구관계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학교적응을 잘 하게 되며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중도탈락의 정도 역시 줄어든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간접효과($\beta = -.088$, Sobel $T = -2.004$, $p = .045$)는 유의하였다. 부모의 사회적지지 정도는 직접적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지만 학교적응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목표 설정 역시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효과($\beta = -.380$, Sobel $T = -4.767$, $p = .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목표설정의 정도가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 설정이 잘된 학생은 학교에 잘적응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중도탈락의 정도도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대학에 입학하는 자원은 계속해서 줄어들어 대학의 정원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신입생을 유치하는 전략과 기존의 학생을 유지하는 전략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다. 중도탈락은 대학의 재정적 위험뿐만 아니라 학교에 남은 다른 학생의 교육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반드시 그 원인을 찾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패션디자인 관련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미치는 변인으로 목표설정, 자기계발, 부모의 사회적지지, 친구관계, 선배관계, 학교적응을 설정하고 이들이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쳐 중도탈락에 영향을 주는지를 밝히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논의한 결론과 이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설정은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다. 이는 목표설정이 잘되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고 학과의 생활에도 잘 적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학교와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진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결과는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주어야 한다는 Price⁶⁸⁾의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학생이 가진 목표가 여러 과정을 통하여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Tinto⁶⁹⁾의 모형을 지지하는 하나의 증거라 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는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간접적인 효과는 있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부모의 영향력은 아동기에 비하여 낮아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를 지나 성인기에 들어선 대학생들에게서도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대부분을 부모가 부담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연구 결과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학생의 학업에 대하여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의 학교나 전공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에게 전공과 관련된 물질적 지원을 해주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물론 부모가 부정적 태도를 가졌다면 이와 같은 지원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으며 심지어는 재수, 반수 혹은 편입과 같은 경로를 학생에게 제안함으로써 중도탈락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다.

셋째, 친구관계는 중도탈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을 통하여 간접적인 효과 역시 있었다.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에게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친구가 미치는 영향은 그 정도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학교 생활에서 친구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지원인 교재의 즐거움, 도움, 친밀감, 신뢰, 인정 그리고 정서적 안정은 학교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며 중도탈락의 결정할 경우 이와 같은 친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 정서적 지원을 일정부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Tinto⁷⁰⁾가 제안하고 있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일부 지지하는 결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학생의 학업지속을 결정짓는 것은 동료관계를 포함한 대학의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라 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다루어진 친구관계는 학과 적응과 정적인 관계에 있고 중도탈락과는 부적인 관계를 보인다. 비행청소년 대상의 연구에서 중도탈락을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친구관계를 들고 있는데, 중도탈락을 하는 학생들은

친구관계에서 학교 내의 친구 보다는 학교외의 친구와 학교 밖의 친구들과 더 많이 어울리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을 설명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한 가지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Price⁷¹⁾는 학교 외부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 보다는 학교 내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의 중도탈락 정도가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 내에서 타인과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학교 적응과 중도탈락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도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친구관계를 촉진해 줄 수 있는 학교 환경 및 학업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자기계발과 중도탈락은 직접적 관계 뿐만 아니라 간접적 관계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계발의 의지가 있는 사람은 중도탈락을 잘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측정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한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볼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에 근거하여 나타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자기계발의 정도가 중도탈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기계발과 목표설정 간의 높은 관련성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모형에서 나타난 값을 살펴보면 다른 관계에 비하여 두 변인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표설정이 잘되어 있으면 자기계발의 의지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자기계발의 의지가 높다면 목표설정역시 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설정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부분과 자기계발이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배관계는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에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응답한 응답자들이 모두 패션 관련학과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는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패션 관련학과는 실습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실습은 학생 개인이 혼자서 과제를 완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선배는 전공과 관련된 수업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배관계가 원

만하지 못하다면 선배관계가 원만한 학생에 비하여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중도탈락의 가능성 역시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선배관계가 학교적응과 중도탈락을 설명하는 정도가 유의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현재 패션관련학과에서 선배의 역할이 생각보다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과의 전공 관련 수업은 대체로 학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배 보다는 친구관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응답자들이 선배관계의 중요성을 낮게 평가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학생들의 목표설정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목표설정이 잘된 학생은 학교에 적응을 잘하면서 중도탈락의 정도도 낮았음을 고려해 볼 때 신입생에게 전공과 직업에 대한 목표설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의 상당수는 자신의 학문적 목표 즉 전공과 직업선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대학생활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전공이나 혹은 직업과 관련한 탐색과 가치관의 명료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이 가진 가치관과 자신이 가진 전공 또는 직업 간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해당 분야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여 방황할 것이고 이는 개인적, 사회적, 나아가서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정확한 목표를 가지는 것은 학생의 학교에 적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를 통하여 중도탈락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에게 정확한 목표를 세우고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하여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조력프로그램의 제공은 매우 시급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학생의 지속적 등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입학초기부터 제공되고 또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조력 프로그램이었다는 Rendón⁷²⁾의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먼저 학생들의 목표설정과 직업가치를 분명히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에게 학과의 전공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와 취업에 대하여 쉽고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또한 전공과 진로에 맞출 수 있도록 현재 개인의 상태 즉 개인의 흥미와 필요성 그리고 학업능력 등 현재 상태를 진단하여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처방해야 하며 단기적 장기적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목표설정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학생의 개별면담을 통하여 학생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목표의 수정 및 달성방법에 대한 조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관계자의 노력 특히 전공과 진로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 전문가인 교수의 적극적 개입은 필수적이다.

둘째, 부모의 사회적 지지를 획득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학교와 학과에 대한 긍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앞의 연구 결과에서 부모의 지지 정도에 따라서 학생 역시 학교에 적응하는 정도와 중도탈락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수의 부모들은 학교와 학과의 전공 그리고 그 학과를 졸업할 경우 진로문제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가 긍정적인 태도 혹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학교적응이나 중도탈락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자신이 가진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교와 학과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이를 학생에게 끊임 없이 표출하게 된다. 학교와 전공에 대하여 부모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학생에게 줄 경우 이는 학생으로 하여금 학교적응을 힘들게 하고 결과적으로 중도탈락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학교와 학과에서는 입학초기에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교와 학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과의 신입생 환영회 때 학부모를 초청하여 학과의 소개 및 특성과 진로에 대하여 알려 주고 이미 졸업한 선배들의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학부모들이 학과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학과의 소식지를 통하여 학부모와의 학과의 근황과 행사 등을 알리고 직접적으로는 학부모와의 면담을 통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과의 중요한 행사와 관련하여 학부모를 초청하는 것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하여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전공에 대한 이해 높일 수 있으면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학생의 중도탈락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과 내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학생조직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내 구성원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중도탈락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학교 내 구성원과의 긍정적 관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친구관계이다. 따라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학생의 학교적응을 돕고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근 학교에서 학생들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의 중도탈락과 관련된 친구는 학과 또는 전공과 관련된 친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친구관계의 측정은 학과 생활과 전공생활에 친구의 필요성을 측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말하는 학과 적응과 중도탈락에 영향을 미치는 친구관계란 바로 학과 혹은 전공을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학과공부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정서적인 유대감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법으로 학과 내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수업과 관련하여 팀을 구성하고 이들이 상호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초기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묶어주는 노력을 기울리 하면 서로 잘 맞지 않는 구성원으로 팀이 이루어져 도리어 상호작용에서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가 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이와 같이 팀 작업은 선호하지만 평가는 개별적으로 하기를 원하였다. 과제의 규모가 크고 해야 할 작업량이 많아 혼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팀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는 개인의 기여도에 맞게 평가를 받고 싶다는 의미로 보인다.⁷³⁾ 최근 twitter에는 오늘의 명언이라는 제목으로 “조별과제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글이 올라왔고 누리꾼들은 이 글에 찬성하여

여러 곳에 게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이 조별과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은 것이 있는데 류혜숙과 조형숙⁷⁴⁾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이 조별과제와 같은 집단적 과제보다는 개인적 과제를 선호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조별과제에서의 불공정한 평가 즉 과제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 사람들과 과제에 열심히 기여한 사람들 간에 차이가 없는 불공평의 지각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 역시 조별과제를 통하여 다른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하여 서로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 보면 학생들에게 집단과제를 부과하되 결과만 평가하기 보다는 전체적 과정 즉 누가 과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지도하는 교수는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1) “교육통계서비스”, (2011, 3. 11), 한국 교육개발원 정보공시. 자료검색일 2011, 3. 11 자료출처 <http://std.kedi.re.kr>
- 2) Ibid.,
- 3) 김효은(2010), “학업흥미도 향상을 위한 패션전공교육 프로그램”, *패션비즈니스*, 14(1), pp.184-197.
- 4) 이석열(2008), “대학생의 개인 특성 및 대학특성요인이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관계 분석”, *교육행정연구*, 26(3), pp.277-299.
- 5) 김수연(2007), “학생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 특성 분석”, *진로교육연구*, 20(1), pp.111-141.
- 6) Beaty-Guenter, P.(1992), "Sorting, Supporting, Connecting, and Transforming: Retention strategy at community college", *Community College Journal of Research and Practice*,

- 18(2), pp. 113 - 129.
- 7) 신봉섭(2001), "전문대학의 발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전문대학교육협의회 2001학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전문대학교육협의회, pp.21-35.
 - 8) Ferguson, J.M., Wisner, R.E., & Discenza, R. (1986), "Developing a framework for student retention: A challenge to traditional enrollment approaches". *NASPA Journal*, 24(2), pp.2-9.
 - 9) Hossler, Don, Bean, John P.(1990), "*The Strategic Management of College Enroll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10) Astin, A. W. (1977), "What matters most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San Francisco: Jossey-Bass. <http://www.nacada.ksu.edu/Clearinghouse/AdvisingIssues/retention.htm>. 으로부터 재인용
 - 11) 이석열(2008), "대학생의 개인 특성 및 대학특성요인이 재등록 의도에 미치는 관계 분석", *교육행정연구*, 26(3), pp.277-299.
 - 12) Price, L. A.(1993), *Characteristics of Early Student Dropouts at Allegany Community College and Recommendations for Early Intervention*. Cumberland, MD: Allegany Community College. ED 361 051.
 - 13) Timothy, J. P., Jessica, K., Stephanie M. M., Neal S., & Frederick L. O. (in press). "A detection model of college withdrawal",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 14) 김재웅(1992), "미국 대학생 중도 탈락: 개인, 사회구조, 대학의 상대적 중요성", *교육행정연구*, 10(1), pp.17-48.
 - 15) 오영재(2005), "대학 간 학생이동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3(1), pp.327-356.
 - 16) 황연주(2005), "학생 재등록 향상을 위한 대학 서비스 질 측정 사례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4(2), pp.279-296.
 - 17) 김수연(2006), "대학생의 학업지속과 중도탈락 요인 분석". *한국교육*, 33(4), pp.33-62.
 - 18) 이석열, op. cit., pp.277-299.
 - 19) 이병식(2003), "대학생의 학업 중단에 미치는 대학 기관특성의 탐색적 분석", *교육학연구*, 41(2), pp.135-154.
 - 20) 오영재, op. cit., pp.327-356.
 - 21) 김수연, op. cit., pp.33-62.
 - 22) 김수연, op. cit., pp.111-141.
 - 23) Tinto,V.(1992), "Student Attrition and Retention", From Clark, B.R and Nekre, G (Eds) *The Encyclopedia of Higher Education*, Pergemon Press, Oxford, pp. 1697-1709.
 - 24) Swell, W. H., & Hauser, R. M. (1975), "*Education, Occupation, and Earnings. Achievement in the Early Career*". New York: Academic Press.
 - 25) Astin, A. W. (1991). "*Assessment for Excellence-The Philosophy and Practice of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New York: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and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26) Tinto, V (1987). "*Increasing student retention*", San Francisco: Jossey Bass.
 - 27) Price, op. cit., pp.1-18.
 - 28) 서선주(2004), "사이버대학생의 중도탈락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9) Ell, K. (1984),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health status: A review", *Social Service Review*, 58(1), pp.133-149.
 - 30) 이흥구(2003),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5), pp.147-157.
 - 31) 강성희(1991), "아동의 생활사건과 적응에서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의 역할",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2) 이수경(2004), "학교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3) Cohen, S. & Hoberman, H. M.(1993), "Child-mother attachment of six years olds and social competence at school", *Child Development*, 61, pp.152-162.
- 34)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5) 최충식(2006),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가와 사회적 지지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6) Cobb, S. (1976), "Social support as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pp. 300-314. 이수경, op. cit. p. 2.
- 37) Felner, R. D., Ginter, M., & Primavera, J. (1982), "Primary prevention during school transitions: Social support and environmental structur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pp. 277-290.
- 38) Astin, A. W. (1993), *What matters most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Jossey-Bass.
- 39) Rendón, L. (1995), "Facilitating retention and transfer for the first generation students in community colleges", Paper presented at the New Mexico Institute, Rural Community College Initiative, (Española, NM, March 1, 1995).
- 40) Noel, L, Levitz, R., & Saluri, D. (Eds) (1985), "Increasing student reten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41) Tinto(1987), "The principle of effective retention", *Paper presented at the Fall Conference of the Maryland College Personnel Association (Largo, MD, November 20, 1987)*, pp. 1-15.
- 42) 이시은, 이재창(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pp. 947-963.
- 43)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Guilford. from http://people.virginia.edu/~psykliff/pubs/abstract_chrono_allen_land_1999.html
- 44) 장연정(200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5) Laible, D. J., Carlo, G., & Raffaelli, M. (2000), "The differential relations of parents and peer attachment to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 pp. 45-59.
- 46) 조은정(2008),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pp. 299-322.
- 47) 이수경, op. cit. p.22.
- 48) Aboud, F. E., & Mendelson, M. J. (1996), "Determinants of friendship selection and quality: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W. M. Bukowski, A. F. Newcomb, and W. W. Hartup (Eds), *The company they keep: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pp.87-112.
- 49) Collarelli, S. M. and Bishop, R. C. (1990), "Career commitment: Functions, correlations, and management", *Group and Organization Studies*, 15, pp.158-176.
- 50) 김지웅(2008), "대학생의 멘토링 기능이 대학생 생활 적응과 만족에 미치는 영향: 외식전공 학생의 Mentor에 대한 신뢰에 따른 차이비교를 중심으로", *외식경영연구*, 11(2), pp.77-101.
- 51) 정명화, 경경숙, 박성미(2005), "전문대학생의 학과 적응 증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 *교육학연구*, 43(1), pp.1-26.
- 52)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 생활 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3) 박동건, 최대정(2003), "창업자의 역량평가도구 개발 및 타당도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6(2), pp.61-92.

- 54) 김효은, op. cit., pp.184-197.
 55) 박동건, 최대정, op. cit., pp.61-92.
 56) 김효은, op. cit., pp.184-197.
 57) 박지원, op. cit. pp.1-127.
 58) 정태화(2002), “미국에서 전문대학 학생보유 연구에 관한 시사점 분석: 재학생 감소 시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연구*, 21(1), 한국 직업교육 학회, pp.327-342.
 59) 김효은, op. cit., pp.184-197.
 60) Chou, C. P., & Bentler, P. M. (1995), “Estimates and tes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Rick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pp.37-55.
 61) West, S. G., Finch, J. F.,&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Sage, pp.56-75.
 62) 이기종(2000), *구조방정식모형*, 교육과학사, p.15.
 63) Bentler P. M.(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pp. 238-246.
 64) Tucker, L. R.,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pp.1-10.
 65) Brown M. W.,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Long J.S.,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pp.136-162.
 66)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In S. Leinhardt (Ed.), *Sociological Methodology*,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pp. 290-312.
 67)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pp. 717-731
 68) Price, op. cit. pp. 1-18.
 69) Tinto, op. cit. pp. 1-15.
 70) Tinto, op. cit. pp. 1-15.
 71) Price, op. cit. pp. 1-18.
 72) Rendón, op. cit. pp. 6-7.
 73) “조별과제는 공산주의가 왜 망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 (2011. 6. 7) twitter 자료검색일 2011. 6. 10, from <http://goo.gl/LKQNr>
 74) 류혜숙, 조형숙(2008),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대학 입문경험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pp. 249-276.

접수일(2011년 5월 2일),
 수정일(1차 : 2011년 6월 29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 4일)